



BERITA MALAYSIA



2009년 5월 4일



제 2 호

RaonAtti

말레이시아의 어머니 날



말레이시아에서는 5월 10일이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다. 여기는 어머니의 날과 father's day(아버지의 날)가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버이날(5월 8일)과 비슷한 점이 많다. 자녀들이 아버이를 위해 카네이션 꽃과 편지, 선물을 준비 하는 것도 한국과 같다.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베다니 홈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리고 노래를 불러 드린다. 각 학년 별로 학생들은 자신의 어머니께 드릴 카드도 쓴다.

라운애프 친구들은 베다니 홈의 기혼 선생님께 드릴 어머니의 날 카드를 만들게 되었다. 카드의 형식에 제한이 없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한국적인 문양, 한복 종이 접기, 매듭 만들기를 활용하였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역사, 음식, 문화에 관련한 염서를 바탕으로 이용하였다. 모두 44개의 카드를 만들었고 영어와 한국말로 편지내용을 작성하였다.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종이로 접어 붙였고, 한국적인 문양을 그려 완성하였다.

그리고 베다니 홈 학생들이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활용하여 카네이션 꽃을 만드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편지와 함께 카네이션 꽃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보영

4000년의 행복



한 나라에서 세 나라의 음식을 모두 맛보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 말레이 음식점 옆에 중국 음식점이 있고, 그 옆에는 인디아 음식점이 있는 거리. 이런 거리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이다. 말레이, 중국, 인디아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 만큼이나 음식 문화도 다양하다.

말레이시아 생활의 많은 즐거움 중 하나는 여러 나라의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맛있는 많은 음식들 중 어떤 음식부터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던 터에 선택한 것이 말레이 전통음식인 나시 르막(Nasi



Lemak)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대중 음식이다.

나시 르막은 흰 쌀밥에, 삼발소스(생강, 튀긴 멸치, 계피 등이 들어가고 빨간색의 매콤한 소스로 말레이시아 요리에 자주 사용된다), 볶은 땅콩, 계란 지전, 오이를 곁들여 비벼 먹는 음식이다. 가격은 음식점마다 다른데, 보통 RM1(400원)으로 굉장히 싸다.

우리는 맛있게, 배부르게, 싸게 먹고 싶을 때 나시 르막을 찾곤 한다. 나시 르막과 함께 로띠 차나이(Roti canai)를 함께 주문해서 먹는데 로띠 차나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 만나자!!

서윤선

HIJAB 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말레이시아 팀은 지난 3월 KL에서 지내던 중 말레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단원들은 약 10일간 자발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공부는 회의가 끝난 뒤 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5주에 걸쳐 단원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 공부하였고, 어떤 생각들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주에는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발표와 토의사항들을 소개코자 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 히잡은 규란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규란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히잡을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은 머리와 가슴을 가려 순결을 지키고 유혹을 차단하는 도구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히잡이 하나의 굴레로서 착용했다는 점과 히잡을 쓰게 되면 행동의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여성운동의 영향에 따라 현재 히잡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볼 때 광적인 신도로 보는 것은 서양 및 언론들이 최악의 인권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영향이 크다.

히잡을 착용 하는 것이 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이 여권을 탄압하는 종교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슬람 측 학자들은 이슬람이 여권을 신장시켰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탄생한 지역에서 여자아이를 낳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서 여아를 생매장했던 풍습이 있었지만 이슬람이 탄생하면서 여아 생매장 풍습이 사라지고, '남자도 자신의 여자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여자도 자신의 남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 는 생각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양 학자들은 이슬람 종교가 차도르나 히잡을 쓰게 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은 여자를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 시켰다.

이슬람 여성들은 이 조치가 또 하나의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이슬람 사회에서 히잡은 패션으로서 의미를 지니기도 해서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이라고 치칭되는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 내용을 듣고 단원들은 '히잡, 차도르, 부르카 등 신체를 가리는 베일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았고 현재 여권신장을 이유로 히잡을 반대하는 것이 이슬람 여성 내부의 운동인가 아니면 서양 외부에서의 목소리인가'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단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슬람과 서양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모두 동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외의 다른 문제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선으로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채해원